

第28回
(休會中)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1993年11月2日(木) 午後4時

場 所：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案)
2.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城北區'93第4次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0面
3. 서울特別市城北區'93第4次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城北區廳長 提出) 13面

(16時35分 開議)

○議事係長 鄭益煥 第28回 臨時會 休會中
第1次 行政委員會 會議가 개회되었습니다.
開議에 앞서 國旗에 대한 敬禮를 하겠습니다.

전면의 國旗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國旗에대한敬禮)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鎬山 行政委員會 委員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本 會議에 이어서 第1次 行政委員會에
많이 參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會議를 위하여 參席하여 주신
區廳關係 公務員 여러분의 勞苦에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성숙된 議政活動을 하고자 시작한 계유년
도 싸늘한 바람과 함께 서서히 한해를 마
감하려하고 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 要求되는 것 같습니
다.

얼마남지 않은 委員會 活動을 뜻있는 한
해로 마감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헌신적인 參與와 奉仕者로서 내고장
발전과 내 이웃의 福利를 위해 活動해 오
셨습니다만, 미흡한 部分이나 施行錯誤가 있
었다면, 이를 보완하고 改善해 나가는 努力

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審査할 案건은, 27回 임시회 기간중
論議한 바 있는 生活體育의 저변확대와 體
育施設管理의 효율을 極大化하기 위한 案건
과, 구유재산관리 조례 중 3件의 案件으로,
委員 여러분의 현명하고 성숙된 判斷으로
審査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12분의 委員님께서 參席하
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8回 城北區議會
臨時會 休會中 第1次 行政委員會 會議를
개회하겠습니다.

議事日程 상정에 앞서 이미 여러위원들
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趙學來課長
님이 총무과 과장님으로 그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오늘 公式의으로 인사를 드리는 時
間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趙學來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8일자로 總務課長으로 발령받고 委員님
들을 정식으로 공식성상에 뵙는 것이 없
어서 오늘 이 機會를 통해서 정식으로 人事
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 指導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
料徵收條例案審査의件(城北區廳長 提出)

(16時38分)

○委員長 黃鎬山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城北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 條例案審査의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지난 8月16日 第27回 임시회 기간 동안에 提案說明만 檢討하고 그리고 한번 審査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심사한 내용중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委託問題, 管理問題, 使用料問題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좀더 檢討하고자 保留된 案件입니다. 따라서 委員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順序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質疑가 있으신 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가 없습니까? 總務課長님,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總務課長 趙學來 죄송합니다.

○委員長 黃鎬山 質疑가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生活體育課長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된 問題點들 알고 계십니까?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네,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그점 어떻게 補完해 왔습니까?

당시에 한 얘기를 드리면 제가 그러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그것을 管理할 사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委託을 하는, 委託할 경우에 또 그 問題點이 무엇이나,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것은 3면중 2면은 이미 委託을 했습니다. 조례도 없이, 生活體育課長이 무슨 책임을 가지고 委託을 했는지, 그것이 1면 쓰는데 한달에 10만원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그러한 점들, 그래서 條例上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委託問題, 管理問題, 使用料 問題등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점을 한번 지금 두달이 지났으니까 補完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지난번 臨時會議에서 조례조문상의 問題가 있어서 委員長께서 지적해 준 事項이 있습니다. 第9條를 보면은 사용료란이 있습니다. 9조 제3항을 보면은 체육시설 위탁관리시는 사용료를 별도로 정한다는 規定이, 만약에 委員님들이 지적하신 事項이 만약에 1개인한테 委託할 경우에

使用료를 이 條例規定 이외에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第1項에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第1項을 보시면은 구청장은 體育施設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使用料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使用料는 전용사용과 개인사용으로 구분한다, 이 란 1項에 구청장 가업란에 수탁자 區廳長 또는 수탁자는 體育施設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1항에 의한 使用料를 징수하도록 한다, 둘째 수탁자란을 삽입하면 그러한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은 또한 저희가 당초 이 9조3항의 問題는 委託管理料를 예상하고 조항을 넣었는데 委託料 징수에 관한 規定이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第17條에 2項을 新設을 해서 만일 體育施設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료를 徵收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運營費의 일부를 支援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사용경우에는 되지않나 이렇게 저희 判斷이 있습니다.

또한 黃委員長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 위탁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는 이 條例가 改正되기 전에 도시공원법의 規定 第6條 規定에 의해서 여기에 非行政廳의 공원시설관리입니다. 委託條項이 있어서 또한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第3條의 規定을 원형해서 委託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委託料는 8개월동안 기준해서 269만원입니다. 세면중 두면을 委託을 했는데 1면당 월16萬3,000원 정도가 委託料로 산정되어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委託料를 徵收를 했습니다. 체육관은 지금 현재 공정이 80% 정도로써 11월말이면 竣工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 여러가지 이 개관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準備할 事項이 많이 있습니다. 住民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한 여러가지 체육관내에 부착되는 이용안내물이라든가 이러한 事項들이 條例의 내용과 맞물려서 되기 때문에 이번 行政委員會에서 통과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다른 委員님, 안계십니까?

좀더 더 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십억을 들어서 구민체육관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관리하려면 몇명이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직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몇명정도 될 것 같어요?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지금 현재 저희가 判斷하고 있기로는 총 9명이 所要될 것으로 判斷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거기에 管理者가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안으로는 행정직 7급으로서 관리자가 있고 그외에 管理하는 매검표요원, 사용료를 徵收해야 되기 때문에 표를 파는 사람, 거기에서 검표를 하는 사람, 또한 거기에 체육관이 전체 한 650평 정도됩니다.

이를 清掃할 수 있는 美化員 2명, 또는 각종 또한 警備를 서야 됩니다. 全體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管理人力이 총 2명이 所要判斷이 들었는데 관리인력 1명과 행정직 1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또 전기시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기보일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1명, 또한 보일러 기계 資格證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비, 매검표, 청소등해서 機能職이 한 9명정도 所要되지 않나 이렇게 判斷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위탁을 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위탁을 줄 경우에는 물론 全體的인 모든것은 判斷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체육관을 본다면은 利益이 남지않는 事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有料委託은 사실상 不可能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區에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기위한 方針을 정하고 推進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그런데 이미 테니스장은 위탁을 준 것이죠?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테니스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都市公園法이라든가 조례를 참고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3면중에 2면을 委託했습니다. 사실상 테니스장의 관리는 一般行政職의 고용원으로서는 管理하기

가 참 어렵습니다. 거의 관리는 노면이라든가 이런 모든 관리는 하나의 專門性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判斷下에서 委託을 했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지난번에 審査때에도 지금 3면중에 2면을 위탁을 주어서 그분들이 전 용으로 쓸 우려가 있다, 그점에 대해서 많은 論議가 되었어요. 그점 보완, 그리고 또 앞으로 體育館이 준공이 되면은 9명 정도 관리인이 거기에 投入이 되는데 같이 관리하는 方法같은 것을 생각해 보지않았어요?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제가 아까 9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체육관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人員이고 만약에 테니스장을 직영한다면은 거기에 專門人力이 별도로 必要로 합니다.

○委員長 黃鎬山 1명을 쓰지않기 위해서 본래의 目的대로 가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네. 金知雲委員長님.

○金知雲委員 金知雲委員長입니다. 지금 生活體育 월곡산공원에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장하고 있는데 城北區에 테니스장이 몇개나 있습니까? 몇명이나 있어요? 생활체육인들이 活用하고 있는 테니스장 있죠?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네, 있습니다.

○金知雲委員 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區廳에서 시설을 確定해서 우리가 支援하는 것도 있죠? 개운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개운산에도 있습니다.

○金知雲委員 정릉도 있죠?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정릉에 있고 지금 현재 學校라든가 모든것이 테니스장은 여러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豫算을 들어서 시공한 것은 월곡 테니스장 한곳뿐입니다.

○金知雲委員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제가 느끼는 것은 城北區民의 체력 증진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월곡 산 체육시설을 城北區豫算으로 구입해서 開發시켜놓고 있는데 지금우리가 하나 의심되는 것이 있어요. 이 委託管理나 비영리단체는

그 體育團體에다가 委任한다 할 적에는 그것 營利事業이 아닌데 그것을 누가 맡을 사람이었죠. 내가 볼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매표관리 김포원이나 이런 것도 별로 重要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城北區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使用하는 體育館이고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人員은 2명 매표 파는 사람까지 必要없다고 보고 우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코트장 바닥을 고르게 하고 유지하려면은 어떤임대를 한다든지 委託을 한다든지 테니스인만이 必要的 것을 賃貸하고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使用할 수가 없죠.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施設을 만드는 것도 자기네들이 매월 會員이 있으며 會費를 걷습니다.

지금 제가 볼적에 會費를 걷어가지고 자체에서 會員들이 테니스바닥을 고르고 體育施設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 테니스장은 별로 問題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실내체육관의 管理運營問題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 한1년에 실내체육관은 얼마가 들어가고 실제로 체육관 사용료를 받는 금액이 가상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데 수치적인 問題가 부족한 金額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것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사실상 지난번에도 하나의 收入과 지출의 추계는 실제로 안해봤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추계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3억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저희가 다시한번 거기에 對備해서 다시 研究를 하고 실제로 들어 갈 수 있는 최소의 경비가 어느정도 所要될 것이냐, 그것을 한번 다시 再檢討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세입면에서 저희들이 檢討를 해 봤는데 거기에는 卓球場이 있습니다. 卓球場에 시설이 6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條例案에 시간당 1,000원씩을 받도록 지금 案이 되어 있습니다. 6대를 1,000원씩 받고 4시간동안 그 사람이 30명을 했을때 720萬이 收入이 되지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헬스장이 있는데 하루에 이용 人員이 30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面積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使用料 1,500을 기준해서 300일의 50%를 잡아서 670여만원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體育敎育교실과 강습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교실 두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호당 40명씩 두개교실을 2회씩 12월간 평균잡아서 12,700원씩을 받는다 하면은 다음주 프로그램 수강료를 위해서 2,38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 주경기장이 있습니다. 288평의 주경기장이 있는데 거기 體育館을 전용으로 빌려줄때 월 1회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한 25만원 정도해서 총 4,000여만원의 收入이 되지않나 그렇게 判斷이 됩니다. 또한 지출면에서 人件費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行政職으로해서 한다면 7급기준해서 한다면 1,500만원정도 機能職 8명을 기준해서 한다면 한 1억정도에서 한 1억1,700만원이 所要豫算이 되고요. 一般 運營費로 해서 청소용품, 운동용품이라든가 弘報物 각종 비품 구입등해서 1,200만원, 만약에 機能職에 피복이라든가 숙직실에 침구류, 그러한 基準으로 해서 할때 94만원선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연결돼서 1일 숙직비가 所要가 됩니다. 거기에 일숙직해서 230萬원, 하루에 5,000원씩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上水道料金이라든가 下水道料, 電氣料, 기타 電話料든가 뒤에 따르는 公共料金이 1,600만원 정도, 또한 거기에 샤워장이 있는데 샤워장과 生活體育敎室과 사무실 관리등의 燃料費가 한 395만원정도 총 2億1,000만원 정도가 所要되지 않나 이렇게 判斷이 되고 있습니다.

○金知雲委員 그러면 이것이 원래 區廳 자체에서 이것이 탁구대 6대 있는데 1시간당 1,000씩 받아가지고 收入을 맞춰가지고 運營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그렇습니다.

○金知雲委員 원래가 성북구 區民의 體育施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나가는 2억1,000만원은 體育振興金으로 이렇게 使用하도록 해 놓는 것이 완벽한 狀態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체육관 임대해 가지고 使用料 써 가지고 하는거야 전부 들어와 봤자 한 5,000만원 들어오네요. 그래서 7천, 5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야 이제 7,000만원 들어

오지 그대로 計劃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推計를 해본 結果입니다.

○金知雲委員 그렇죠. 추계해볼 때 그것인데 1년에 城北區民의 생활체육 金額으로 2億이면 2億1,000萬원을 承認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要求하는 事項이 낮겠습니다. 體育館을 지어놓고 體育施設은 만들어 놓고 管理는 해야되고 지켜야될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천상 이것은 收入과 支出과의 비교는 안되는 것은 事實이 아니겠어요.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사실상 맞습니다. 體育施設은...

○李天浩委員 조례안 制定해 놓은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關係가,

○金知雲委員 條例를 설명할 때 요점정리를 해서, 제가 說明할 적에는 이것이 조례에 의안에 나온 狀態가 여기서 討論할 수 있는 時間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委員長 黃鎬山 또 다른 委員님 계십니까? 네, 柳成烈委員님,

○柳成烈委員 체육관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完工이 안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運營을 안해 봤기 때문에 사실 미지수 부분이거든요. 물론 區民을 위해서 生活體育館을 짓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으로 해서 豫算이 確保되어서 지었습니다마는 條例 制定을 하다 보니까 結果적으로 이것이 예기치 않게 다뤄보지도 않고 豫算도 모르는 狀態에서 다루다보니까 어떤 것이 맞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運營自體를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하고나서 條例를 규정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條例를 정해놓고 해보지도 않은 狀態에서 무조건 條例만 정해놨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저 個人的인 의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總務局長 李榮宰 그것은 제가 조금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現在 區民體育館이 11월30일자 되면

거의 竣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竣工이 되면 93年 1月1일부터 정식으로 運營을 하게 됩니다. 먼저번에 黃委員님 말씀하시기를 왜 테니스장을 區에서 땅값까지 합해서 건설비가 한 7,0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왜 個人에게 위탁을 해서 特惠를 주느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區民體育館도 12억원이나 13억원을 들여 지어가지고 이것을 내년에 生活體育교실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항상 區民을 위해서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어머니교실, 헬스클럽등 늘려야 되는데 테니스장도 活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면 짓는데 돈이 들어가고 運營하는데도 1년에 천, 몇백만원 이 정도 豫算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 豫算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公務員이 직접 運營하면 專門人도 아니고 테니스장 관리도 부실하고 또 이것이 클럽도 잘 形成되지 않고 그럴바에는 우리가 한 2,000여만원 豫算을 손해를 안보고 일반 우리 區民테니스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은 非營利 法人입니다. 그 사람들은 테니스 同好人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당신”들은 테니스관리도 잘하고 이것도 잘 하니까 해가지고 “2,000만원 우리 돈을 오히려 안버리고 오히려 1년에 한 400만원 더 보태라” “너희 받아가지고 우리 使用하는 조례에서 制定하는 요율을 받아 가지고 너희 기본 運營費 쓰고 남는 것 한 400만원 정도라”하면 우리는 400만원 예산 덕을 보고 테니스관리도 運營도 잘 되고 또 여러가지 管理도 잘되고 하기 때문에 낫지 않느냐 이래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민 체육관이 11월 말에 竣工됩니다. 고민입니다. 돈은 12억 넣어놓았고 來年에 우리가 그것을 직영을 할려면 말이죠, 적어도 여기 計算해 보니까 2億5~6,000만원 들어갑니다. 인건비, 행정주사보가 1명 있어야 되죠. 기능직 보일러공, 청소부, 수위 등등 해가지고 하니까 한 7, 8명 되는데 인건비만 해도 1억 몇천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등등 해가지고 2億5~6,000만원 대충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우리 豫算에 하나도 없는데 내년엔 다 아시다시피 대충 計算해보니까今年 93年度 豫算이 한 800억중에서 한 200억 정도 190몇억원이 일반 사업비 투자사업, 도로건설, 하수도 이런데 하는데 주로 事業費가 들어가는데 來年에는 가만히 보니까 한 5,60억 밖에 사업비로 투자 못해요. 그외에는 전부 人件費이고, 경상비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 3億정도 넣어버리면 한 2억정도 넣어버리면 문제가 이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려고 하니까 테니스는 테니스연합회가 있으니까 줄 수가 있는데 이것 우리 區民體育館 누가 자기가 인제해 가지고 그냥 자기 비용으로 管理를 하면서 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해서 來年에는 우리가 直營을 해야 안되겠냐, 우리가 돈을 몇억 들든지 그냥 물릴 수는 없으니까 직영을 해서 來年에 한번 해보고, 꼭 누가 희망자가 있으면 그것을 줘 가지고 우리 豫算으로 안하고 私人이 잘 活用을 해 가지고 運營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만 買入이라도 들어 올 수 있으면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우리가 3억 支出한 것 같으면 몇천만원만 支援을 해주고 너희가 運營을 해라 결국 운동하는 사람은 우리 城北區民이고 결국 서울市民이니까 우리 城北區 안에 있으니까 城北區民이 많이 運營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너 城北區民 아니니까 너는 道峰區니까 오지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사람을 그래서 그런 立場이기 때문에 이 條例를 制定하는 목적은 이것을 制定을 해줘야 지금 테니스장도 사실상 臨時的으로 그렇게 했지, 이렇게 되면 보장이 됩니다.

우선 받고 있는 것은 대충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制定을 해줘야 모든 것이 운영이 法規에 맞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條例를 정해주면 弘報를 해주고자 예산 조례 제정해서 弘報

가 되고 이것 얼마나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만약 柳委員님 말씀대로 이것 아니다 하면 내년엔 한번 해보다가 안되면 條例를 다시 改正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條例가 만들어져야 正常의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委員長님」하는 이 있음)

○委員長 黃鎬山 네. 李天浩委員님.

○李天浩委員 지금 總務局長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조례 制定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테니스장을 賃貸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異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生活體育課長님이 말씀하실 때에 4,000만원의 收入이 있는데 약 2억1,000만원 支出이 있다는데 이미 收入과 支出에 대해서는 밸런스(balance)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體育館을 建設할 때는 收入과 支出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城北區民의 체육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테니스를 동호인들한테 委託管理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 同好人들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될 테니까 오늘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은 돈을 받겠지요.

○總務局長 李榮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李天浩委員 물론 다른데 보다는 적게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테니스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한다면 나나 다른 그 近處에 있는 문외한도 와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지만 同好人들이 한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하면서 취미삼아 건강삼아 하니까 조금의 우리 운동시설을 만드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收入과 支出을 꼭 이렇게 생각한다면 체육관 전체 지은것 다 세놓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수입지출이 더 낮겠지요. 체육관이고 탁구장이고 다, 그래서 어차피 區議會에서 지출하고 補助를 해줄 바에는 同好人들한테 주는 것 보다 오히려 몇푼을 덜 하더라도 테니스를 칠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 근처있는 사람들이 많이 同好人이 아닌 사람들에게 줘서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總務局長 李榮宰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同好인들이 테니스면 관리를 잘하고 또 지금 現在 방학중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우리가 1면을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면이 있는데 1면은 우리 區廳이 테니스교실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쓰기로 하고 또 거기에서 同好人중에서 總務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름방학때라든지 학생들한테 테니스교습을 합니다. 테니스 교습을 하는데 그것은 저렴한 費用으로서 교습비는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것은 받아가지고 테니스 擴散을 시키고 있습니다.

○李天浩委員 그것은 좋은 뜻인데 그 사람들이 2면을 그렇게 委託管理하고 1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체력을 소모하고 적은 돈을 받아가면서 1면에 와서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좋지만 실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죠.

○委員長 黃鎬山 李天浩委員님 말씀에 상당히 나는 동조를 합니다. 우선 몇억, 몇십억을 들어서 체육관을 만들고 저 넓은 땅에도 만들었으면 적어도 직영할 생각은 가져야 돼요. 그 몇푼 節約하기 위해서 직영 못하겠다고 하면 아예 구상을 하지 마셔야지 지금 國家에서 잠실체육관 드는 비용있다해서 잠실운동장, 잠실체육관 위탁 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費用이 많이 들더라도 委託하지 안았고 直營을 해야 진정한 구민체육관이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위탁을 지금 2면을 줬어요. 2면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전용적으로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져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때나 가서 칠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1면 정도 이쪽에 구민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민테니스장이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費用이 너무 싸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1년에 1면에 130만원 정도밖에 안 주고 그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달에 한 십 몇만원이에요. 십몇

만원이면 테니스 동호인들 한 10명이 약 2만원씩만 내자 그러면 언제든지 使用할 수 있어요. 本質적으로 모든 區民體育館은 직영쪽으로 몰아줘야 한다, 지금 이 條例가 올라왔을 때 조례상의 문구 문제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直營하는 쪽에다 놓고 委託問題는 빼고 條例가 올라와야 하지 않나, 이것이 지난 8月16日날 저희들이 회의한 결과예요. 그 結果인데 몇푼 節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몇십억이 본래의 目的과 다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李天浩委員 이것이 골프장을 하는데도 돈이 들게 위탁관리해서 세를 조금 놓는데 지금 우리가 헬스클럽가서 한달 운동을 하더라도 보통 3만원부터 6만원입니다. 1명이 그러면 1년동안에 제가 나가서 한다면 12개월이면 3만원씩만 따진다해도 36萬원입니다. 36萬원이면 4명이 그 골프장만 하더라도 1년에 120만원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명만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2만원씩만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것은 하기 좋은 얘가지 실제 賃貸料가 너무 싸입니다. 坪當價格으로 따져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總務局長 李榮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黃委員님이 말씀하신 테니스사용료가 너무 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테니스 사용료는 公共料금입니다.

○委員長 黃鎬山 저는 使用料가 아니라 지금 현재 委託준 업체에 너무 싸게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싸고 비싸고 뭐고간에 直營쪽으로 가라 이거죠.

○總務局長 李榮宰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싸게 준것은 우리가 더 分析을 해 가지고 이런 結果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테니스사용료를 지금 現在 委員님들 條例에 테니스使用料가 탁구장은 얼마다, 체육관 사용료가 別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委員님들이 議決해 주시면 施行됩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선 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릴 수 없기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전부 經濟企劃院의 물가, 전부 조정에 들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의 公共施設인데 이게 전부 잠실체육관 또 저기 목동테니스장 전부 서울시의 공공

테니스와 전부 均衡을 맞췄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올릴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또 調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할려고 하면 이거 뭐

○委員長 黃鎬山 아니, 總務局長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區民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싸게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委託問題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總務局長 李榮宰 왜 委託料가 싸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議會에서 承認한 이 使用料를 근거로 해서 運營을 할 때는 그 정도의 이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決定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承認된 이 요금을 根據로 해서 運營할 때는 이 정도의 利益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그렇지만 體育館은 委員님께서 위탁을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委託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우리가 해야 되고 테니스장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管理하는 것이 더 市民에게 區民에게 테니스 普及하는 것도 편리하고 또 테니스장 보수하는 것도 편리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便利하기 때문에 豫算的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2,000~3,000여만원 豫算을 支出할 것은 지출하고 오히려 1년에 400만원 받으면서 테니스장 管理는 더 效率的으로 잘 하니까 이것은 부득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사전에 協議를 했어요. 안 할려는 것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만 體育館은 黃委員長님께서 이것은 절대 위탁을 줄려고 해도 이것은 누구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事項이니깐 그것을 理解해 주세요.

○李天浩委員 체육관은 안 된다 하더라도 테니스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을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일시에는 못 모이지만 한달만 가면 몇십명이 모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북악터널 넘어 신북악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많은 보조를 했어요. 배드민턴장 만들때가 없지만 만들어서 해 놓으니까 지금은 50명 내지 100여명의 會員이 와서 자기들이 한달에 3만원씩 내서 문호를 開放하고 누구나 와서 會員으로만 加入되면 거기를 整備作業을 하고 아주 깨끗하게 해 가지고 주위 환경을 淸掃를 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도 委託管理를 한다는 것은 아까 局長님 말씀이 맞습니다. 委託管理를 하지 말고 거기에 한사람만 가르치는 사람을 두든지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인근 하월곡, 석관동, 장위동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달도 안가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 모여서 區議會에서 돈을 支援해 주지 않아도 自體的으로 1만원이고 2만원이고 3만원이고 會費를 내가지고 그 코치에게 돈도 주고 얼마든지 利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委託管理를 하면 거기에 꼭 지정된 사람 이외에는 못 한단 말이에요. 칠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委託管理를 하지 말고 기왕 할 바에는...

○總務局長 李榮宰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委託管理라 하면 그 同好人만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委託時間이 딱 있습니다. 委託時間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 그렇습니까, 테니스 먼저 친 사람보고 일반인이 와 가지고 너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먼저 오면 同好人보다도 이 사람이 먼저 와서 치면 同好人도 기다립니다. 누가 아침 일찍와서 同好人이 아닌 사람이 일찍와서 치면 너 同好人이 아니니까 치지마라 이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李天浩委員 그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委託管理

○總務局長 李榮宰 그러니까 이것은 委託管理를 하더라도 同好人은 모르겠지만 우리 區民들은 누구나 많이와서 기회균등에 의해서 同好人이 먼저 왔으면 同好人이 치는데 너는 나가라 그렇게 할 수 없고 만약 一般人이 와서 치면

○李天浩委員 위탁자가 우리 區議會에서 委託使用料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

람들은 수지예산이 맞아야 되지만 委託管理를 하게되면 순수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한테 委託費를 안 내고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왕 많은 돈을 區議會에서 재정을 支援하면 城北區民 전체가 많이 利用할 수 있기 위해서는 委託管理하는 게 좋다, 저는 그 뜻입니다.

○委員長 黃鎬山 申夫浩委員님,

○申夫浩委員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體育課長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委託管理를 2면을 했다는데 그 期限은 얼마나 됐습니까? 委託期間,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今年末까지 입니다.

○申夫浩委員 93年度 말까지요, 그러면 94年度에는 만약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 보셨습니까?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그때까지 다시 檢討를 해야 될 事項입니다.

○申夫浩委員 그러면 지금 3면중에 2면은 위탁관리 주고 1면은 委託管理 契約을 안 했죠?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그러니까 3면 중에 2면은 단지 위탁관리한다고 해서 동호인들만 使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단지 우리 區民들의 테니스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테니스 생활체육교실을 계속 運營하고 있습니다.

그 한 면에 대해서는 테니스 人口의 底邊擴大를 위해서 테니스교실을 運營하기 위한것이든, 구에서 직접 使用하기 위한, 行政의 目的으로 使用하기 위해서 한 면은 구에서 直營하는 구에서 직접 使用하는 그런 方法을 채택해서 運營하고 있습니다.

○申夫浩委員 그리고 테니스 同好인들이 와서 운동을 할려면 아침에 오든, 저녁에 오든 바로 접수대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죠?

○生活體育課長 李昌泰 예. 예약제로 지금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申夫浩委員 입구에서 接受를 시키면 總務가 접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운동이 끝나면 다음 번 다음 번 順序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한 方法으로 우리 城北區民들이 活用할 수 있는 그러한 方法도 한다면 우

리가 앞으로 直營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나오는데 今年까지 委託期間이 됐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대로 今年까지는 하고 94年度에 가서는 우리가 直營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方法을 하고 현재 이 안은 그대로 체육관 여러가지 機能을 뒤가지고 管理를 하면서 現在 테니스장 3면에서 2면은 위탁계약이 됐고 1면 남았으니 1면은 그대로 直營을 하면서 두면은 그대로 今年까지는 해보면서 내년에 直營하는 方法을 한번 摸索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黃鎬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條例案이 몇가지 問題點을 갖고 있어요. 구문 자체가 몇가지 問題點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수정할 것인가, 지금 生活體育課長이 몇가지 제의도 했습니다. 이것을 修正할 것인가? 그런데 根本問題는 이 조례중에 委託問題가 나와있다는 거예요. 委託할 수가 있다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委員님들은 委託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이 委託 안 하겠다면 이 條例가 通過되면 안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이 條例를 그냥 通過시켜줄 것인가, 수정해서 通過시켜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우리의 뜻대로 다시 올라오도록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약 10분간 停會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19分 停會)

(17時46分 續開)

○委員長 黃鎬山 會議을 續開하겠습니다.

잠시 停會 동안에 여러가지 委員님들하고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나 또 다른 말씀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知雲委員님,

○金知雲委員 條例案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9條에 修正案을 했으면 합니다. 9條 1項 “區廳長 또는 수탁자는 體育施設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使用料 등을 徵收할 수 있으며, 使用料

는 전용사용료와 개인사용료로 구분한다” 이렇게 修正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項은 削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17條 “위탁관리 보조는 1. 1項으로하고 2項 體育施設의 위탁관리시는 委託料를 徵收하거나 필요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支援할 수 있다” 이렇게 修正했으면 하구요, 별표1. “사용료는 삭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일사용료란을 削除 그냥 使用料라고만 하자,

○委員長 黃鎬山 방금 金知雲委員님께서 9條하고 17條하고 별표에서 일부를 수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에 동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 修正案에 대해서 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反對討論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金知雲委員님이 9條와 17條 그 다음 별표 이런 일부를 수정해서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總務局長님,

○總務局長 李榮宰 우리 行政委員會에 상당히 감격을 느끼는데 오늘 地域新聞 기자님도 와계시고 55萬 구민의 體育增進을 위해서 아주 討論을 하셔서 이 안을 通過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鎬山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7時51分)

○委員長 黃鎬山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의件을 上程합니다.

본 條例案은 본회의에서 提案說明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宋 練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는 國·公有財産 대부분 算出에 현실을 기하고 대부분 납부기한 延長과,

수의계약으로 賣却할 수 있는 對象을 확대하여 民願人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改正內容은

○條例24條(建物貸付料 算出基準)

—지하층의 경우: 지하 3층까지 세분하여 適用

—3층 이상의 건물: 算出基準 적용 緩和

○條例25條(貸付料의 納期)

〔중전: 契約締結日로부터 30日 이내

개정: 契約締結日로부터 60日 이내

○조례 38條(隨意契約 賣却對象 재산의 範圍)

—3호신설하여 매각 범위 확대(개정안 參照)

아까 本會議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기존의 1항과 3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항에는 서울特別市,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 이하, 시지역에서는 300㎡ 이하의 建物 所有者에게 賣却하도록 되어있고 신설 3條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도 隨意契約 賣却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 建物의 두배이상의 토지는 隨意契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약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參考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檢討意見을 말씀드리면 지하층 貸付料 산출기준을 지하 3층까지 細分化한 것은 요즘의 건물건축 실태로 보아 現實에 적합하며, 대부분 경감을 위한 算出基準 적용완화와, 대부분 납부기한의 연장, 隨意契約에 의한 賣却財産範圍의 확대 등은 그동안의 國·公有地占有 주민들의 民願을 반영하는 措置로 적절하다고 思料됩니다.

단, 건물대부료의 경우, 일반시장가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자가 賃貸料 경감으로 인하여 特惠를 받게 되는 결과를 招來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黃鎬山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本會議 때에 제가 몇가지 질의한 內容도 있고 그래서 우리 財務局長님이 좀 더 상세히 說明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財務局長님,

○財務局長 朴洙徹 제가 本會議에서 提案

說明드리는 과정에서 質問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答辯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專門委員님께서 檢討報告를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第38條 1·2·3호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餘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說明드린대로 1호에 대해서는 200㎡ 서울의 경우 2호의 경우는 폐도로라든지 용도폐지된 기다랗게 생긴 그런 형태의 토지인 경우는 양쪽의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土地所有者에게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는 일단의 土地面積 이것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준공 인가를 필한 建物이 있는 토지, 우리 관내 같으면 삼선 1·2동 같은 지역이 該當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0㎡ 이내도 가능하고 다만 1,000㎡를 자르고 난뒤에 잔여토지가 남을 경우에는 건축 최저허가 면적인 27% 54㎡까지도 1,000평을 超過해서 해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반다수의 地方自治團體 소유이외의 建物이 밀집해서 占有된 土地로서 地方自治團體가 現實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1,000㎡를 超過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 여러 가구가 오래전 부터 밀집되어 있는 그런 國公有地의 경우에는 1,000㎡ 超過했을 때도 賣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각의 範圍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경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管內도 많은 國公有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條例案을 제안하면서 調査를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필지로서 가장 큰 規模라고 할 수 있는 面積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큰 國公유지가 730㎡가 최고입니다. 이것이 종암2동에 所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00㎡를 넘는 우리 區有地의 경우는 모두 41필지에 94명이 占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별로 보면 삼선 1동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외에는 종암2동 나머지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200㎡ 규모를 所有하고 있는 우리 관내 區有地는 모두 41필지에 모두 94명 가구가 占有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政府에서도 앞으로 國公유지를 오랫동안 占有하고 있고 또 個人的 소유권을 確保해 가지고 재산권 行使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方案으로 개정취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判斷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4條 3층 건물인 경우에는 종전보다도 층수가 높은 2층, 3층의 경우에는 평가액 가운데 우리가 賃貸하거나 賣却할 때에는 건물평가액 더하기 대지평가액, 부지평가액을 두가지 합치는 가격인데 이 가운데 부지평가액을 3분의1 또는 4분의 1, 5분의 1로 층수에 따라서 경감시킨다. 이런 취지로 運營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층의 경우도 종전에 일률적으로 3분의 1 그랬습니다만, 지하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율을 건물평가액은 그대로 있지만 부지평가액을 낮춰서 해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參考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管內에 이러한 24條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있나 살펴봤더니 저희 區가 직접 管理하고 있는 區 所有建物은 구청 뒷마당에 있는 상업은행지점 건물옆에 2층에 있는 이발소가 조그맣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區民會館 옆에 지하1층에 있든 음료하고 식사를 파는 식당 그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월곡동에 아파트형 工場은 지난 4월달에 委員님들께서 많이 審議를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所有로 되어있고 다만 우리가 매월 使用料를 徵收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收入은 저희가 30% 갖고 70%는 시로 들어가고 이렇게 區分 管理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정릉4동 새마을금고 2層建物を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장 이 조례에 影響을 받지 않는 建物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희 區에서 관리하고 있는 建築物은 구유건물은 불행하게도 조례 개정과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公共建物を 確保할 경우에 이런 3층 이상의 建物이나 지하층이 많이 있는 建物を 確保했을 경우에는 이 요율에 適用을 받아야 되지않겠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니까 委員님들께서 그대로 原案대로 通過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예. 알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강통조례가 되어 버렸어요. 다음은 本案件에 대해서 質疑順序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質疑가 있으신 委員님께서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宗鉉委員님,

○申宗鉉委員 申宗鉉委員입니다. 局長님한테 質問이 있습니다. 賣却하는 과정에서는 상한 폭이 어느 上限線까지 우리구 自體에서 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說明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朴洙徹 申宗鉉委員님 質問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구청 입장에서 區有地를 토지를 많이 保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圭유지를 賣却할 경우에는 물론 占有者가 우선 賣却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매각자형편이 됐으니까 국가의 땅을 사겠노라, 매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申請을 받아가지고 일단 議會의 承認을 받습니다.

우리구의회에 承認을 받아가지고 결국 다 음향과 마찬가지로입니다만은 區有財産管理處分計劃變更承認을 받아가지고 承認을 저희가 받게 되면은 바로 우리나라의 감정법인, 재산감정법인이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 法人에게 가격감정을 要請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법인에서는 보통 10일 이내에 評價를 해서 저희에게 通報를 해 줍니다. 그때 감정한 때 土地의 경우는 최근의 추세가 建設部에서 최근에 公表한 토지개별 공시지가를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財産을 매각할때나 또 公共事業이라 해 가지고 사유재산 갖다가 저희가 國家나 區에서 買入할때나 다 똑같이 假定을 한 그 價格가지고 저희들이 價格을 決定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또 質疑하실 委員님, 제가 하나만 물겠습니다.

간단히 물을게요. 隨意賣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는 399평 이상것도 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財務局長 朴洙徹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실제로 300평정도라고 얘기를 할때 3000만원이면 9억정도 되는데 실제 지금 隨意契約關係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區廳에서 몇천만원 이하 이런것들이 있을텐데, 隨意契約하는데 여기 隨意契約對象하고 이것하고 관계를 說明해주세요.

○財務局長 朴洙徹 여기에 나오는 경우는 실상 점유자가 建物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경우는 建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買收를 합니다. 그 이외에 나대지일 경우에는 아무 建物이 없고 공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賣却한다면은 공개경쟁에서 賣却을 해야 합니다.

○委員長 黃鎬山 이것이 지금 저는 占有하고 있고 이것을 떠나서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는 條件이 어떻게 됩니까? 金額上으로

○財務局長 朴洙徹 토지의 賣却은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공지에서도 조례 第38條에 隨意契約 매각대상재산의 範圍해 가지고 아까 것 나왔고 그 다음에,

○委員長 黃鎬山 아니 제 얘기는 지금 區廳의 규정정보면은 수의계약 事項이 있죠? 豫算會計法인가에 있는데 그 金額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에요.

○財務局長 朴洙徹 보통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物品納品の 경우는 500만원미만 이렇게 해서 金額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은요.

○委員長 黃鎬山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날 우려가 있는데요.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質疑를 종결하고 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討論이 있으신 委員님께서는 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討論이 없습니까? 찬성이나 반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討論自體가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찬성하자는 얘기죠?

(「네」하는 이 있음)

反對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본회의에 附議하기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서울特別市93第4次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審査의件(城北區廳長 提出)

(18時05分)

○委員長 黃鎬山 다음은 의사일정 第3項 서울特別市93第4次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審査의件을 上程합니다.

본 동의안도 本會議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송 련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는 끝에 실음)

○委員長 黃鎬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順序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質疑가 있으신 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天浩委員님,

○李天浩委員 李天浩委員입니다. 여기 길음동 여섯가구에 대한 요점에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고 왔어요. 5페이지를 보세요. 그런데 1,2,3,4,5에서 買收申請을 한 사람들은 대단히 占有하고 있는 평수가 적습니다. 우리가 먼저 갔을때에는 6번의 이중취씨만 우리한테만 買收申請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약 31평입니다. 그런데 1,2,3과 4,5,6사이에는 약 1m의 道路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周邊道路가 4m라고 그랬는데 4m도로는 미아국민학교 담장이 쳐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우리 中長期 計劃에서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幹線道路는 8m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차가 서로 비켜가기도 좋은데 이것이 4m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중취씨는 631-7호에 자기 개인집이 있습니다. 약 20평가량되고 이것은 31평인데 앞으로 이것 판다면은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좋습니다. 買收賣却을 해도 좋은데 4m를 8m로 할 때에는 우리가 다시 이것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賣却을 한다면은 4m를

8m도로로 만들 수 있는 것만치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팔지말고 우리가 賣却을 해야 되고 또 1,2,3집과 4,5번 집사이에 1m가량의 道路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잇길로 가면은 길음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일겁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여기에 消防道路가 난다든지 앞으로 그렇다면은 여기에도 또 우리가 팔고 또 사는 結果가 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장위동 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배교회인데 그 옆에도 周邊道路가 4m라고 그랬는데 4m도로변에 있는 땅을 갖다가 약 63㎡면 약 20평가량 되는데 이것을 또 판다면은 말입니다. 도로 4m를 넓힐 때에는 교회에서 팔겠습니까? 도로 그러니까 이 장위동것은 우리가 한번 답사해야 되고 이것도 이래야 되니까 이번 6일까지 회기에는 저는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黃鎬山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宗鉉委員 局長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李天浩委員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지난 번에 답사한 內譯을 꼭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區廳當局에서는 도시계획 도로적인 與件이라든지 모든 構造的인 여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지 局長님의 보시는 見解가 어떠신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朴洙徹 네. 감사합니다. 李天浩委員님,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申宗鉉委員님께서 현재 都市計劃에 어느정도 저촉이 되는지 檢討를 해 보셨나,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議會까지 올리게 될때까지 상당히 저희들도 檢討를 합니다. 해 가지고 現在로써는 여러가지 도로망계획이나 여러가지를 檢討하고 관계과의 意見도 다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現在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判斷이 되고 있습니다.

○李天浩委員 그러면 문제 없다면 局長님하고 저희하고 한번 길음동 같이 답사하기를,

○財務局長 朴洙徹 네. 감사합니다. 동행하겠습니다.

○李天浩委員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2m도

로가 안됩니다. 차가 서로 비켜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거기 답사할적에 차도 그옆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집에서 투정을 부렸던 자리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1,2,3,4,5호 그 집은 괜찮지만 최소한도 6호 집만은 2m나 3m를 우리한테 떼서 確保를 하고 賣却을 해야 합니다.

○徐化錫委員 그런데 이중희씨,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6번 이중희씨 집이 길가로 바로 나와있는 것은 자기 땅입니다. 자기 개인 땅이에요. 그 뒤로 있는 것이 그 집이에요.

○李天浩委員 우리가 거기 가봤을때 자기 땅인가, 어쨌든 이중희씨 집하고 국민학교 담하고 사이에 그 道路가 4m밖에 되지 않아요.

○徐化錫委員 자기땅이고 뒤가 그집 땅이에요.

○李天浩委員 그러면 바꿔치기라도 해야죠. 우리가 道路를 確保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주고 우리가 대체를 해 가지고 우리가 땅을 確保해야지, 길을 넓히지. 이것만 팔아먹고 그러면 그사람 땅을 우리가 달라고 그랬다가는 우리는 8,300만원 돈에 팔고 실적에는 900만원 1,000만원 돈 주고 사게 되는 결과밖에 더 돼요?

○委員長 黃鎬山 우선 徐化錫委員님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길가 옆에 조금 일부가 區有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財務局長님,

○財務局長 朴洙徹 네. 도면상 보니까 이것이 지적도를 擴大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숫자 쓴 것이 이 번호순서입니다. 그리고 建物位置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6번의 경우 이중희씨 점유사유지가 자주빛갈 나는 색깔 칠한 부분, 황색부분이 구유지인데,

○李天浩委員 글썄, 그러니까 徐化錫委員님이 말씀하셨던 徐化錫委員님, 이것이 자주색 칠해놓고 631-7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중희씨 땅은 確實한데요. 그때가서도 우리가 說明들있고 그런데 그 옆에 땅이 아니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確保를 해 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체처리를 해야지, 아

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감정가격을 우리가 가격계산한 것 보니까 약 270만원인가 280만원 돈인데 우리가 賣却할 때에는 280만원 돈이지마는 이 사람 賣却해서 등기만 이전해 놓으면 말입니다, 5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해도 우리 탄 소리 못하고 우리는 사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처리를 해야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현지답사하고 ...

(場內騷亂)

○委員長 黃鎬山 잠깐, 잠깐 잠깐만요. 대부분 委員님께서도 현지답사한뒤 다시 會議를 열자하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구유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비과학적이다, 1년에 4번씩 管理計劃變更을 한다는 것은 計劃性이 없는 거예요. 계획자체가 안되고, 지금 대부분 委員님들께서 말씀은 현장답사한뒤 16, 17일날까지 다음에 17, 18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論議하자 이런 말씀인데 여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李天浩委員 두가지를 얘기했습니다. 踏查하는 날은 局長님을 꼭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黃鎬山 그러면 踏查를 하고 난뒤에 다시하자,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저희들이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해서는 현장답사후 다시 討議하기로 決定하겠습니다.

그러면 委員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議事日程 論議가 끝났으므로 會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15分 散會)

○出席委員 12人

金 知 雲	卜 定 安	徐 化 錫
申 宗 鉉	申 晋 玉	申 夬 浩
柳 成 烈	李 三 田	李 天 浩
黃 義 揮	鄭 喆 植	黃 鎬 山

○缺席委員 2人

徐 海 善	金 光 鎬
-------	-------

○参席委員

副	議	長	吳	榮	泳
---	---	---	---	---	---

○参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	---	---	---	---	---

○参席公務員

總	務	局	長	李	榮	宰
---	---	---	---	---	---	---

財	務	局	長	朴	洙	徹
---	---	---	---	---	---	---

總	務	課	長	趙	學	來
---	---	---	---	---	---	---

生	活	體	育	課	長	李	昌	泰
---	---	---	---	---	---	---	---	---